

민주 광주시당 당직자 인선 놓고 불화

운영위서 의원들간 고성... 일부 “시당위원장 독선적 운영” 비난

민주당 광주시당이 당직자 인선을 놓고 지역 국회의원을 간의 갈등 양상을 보이는 등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이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화합과 소통’을 내세운 김재균 시당위원장의 ‘독선적 운영’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촉발됐다. 17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민주당 광주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시당 당직자 인선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국회의원들 간 고성인 오가는 등 첨예한 갈등을 보였다. 조영택·김동철·이용섭·강기정·장병완 의원 등이 김재균 광주시당 위

원장이 취임 이후 자신 및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 주변 사람들로만 당직자를 인선했다는 것을 문제삼으면서 비롯됐다. 조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중앙당이 인사권이 있는 사무처장을 제외한 4명의 시당 상근 당직자와 9개의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인 자신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은 채 김 위원장이 자신의 지역 위원회와 특정 지역위원회 사람들을 선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당 당직자와 주요 상설위원장 대부분이 김 위원장 지역구 인사와 김영진 의원(서구 을), 박주선 최고위원

(동구) 인사들로 선임됐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시당 위원장 경선 당시 화합과 소통을 통한 ‘화합형 시당위원장’이 되겠다고 해놓고 당직자 인선을 비민주적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조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서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회동을 갖고 시당 당직자 인선문제에 대해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재균 의원 측은 “당직자 및 위원장 인선과정에 일부 의원들이 참석도 하지 않고, 의견도 개진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조만간 지역 의원들을 만나 이를 둘러싼 갈등을 풀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병현 시당 사무처장이 상설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각 지역 위원회와 원만하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당 안팎에서는 이 같은 지역 국회의원 간 갈등 양상에 대해 그동안 추대형식으로 이뤄졌던 시당위원장이 이번에는 2명이 경선을 치르면서 갈등이 생긴데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신경전을 펼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6·2 지방선거 광주시장 경선과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국회의원 간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묘년 광주 발전 기원법회

불교사암연합회와 광주·전남불교신도회가 17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신묘년 광주 발전을 위한 기원법회 및 성도절법회’에서 참석자들이 합장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건강보험 재정 마이너스 행진...2020년 16조 적자

오늘 호남 광역의장단 협의회

광주시·전남도·전북도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호남권 광역의회의 의장단협의회(회장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가 18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는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과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 ▲LH 공사의 전북 이전 등 호남권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최영함, 피랍선박 향해 기동중

우리 군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 (4500t 급·KDX-II·사진)이 아라비아해에서 피랍된 함호해운 소속 화학물질 운반선인 ‘삼호주열리호’를 향해 기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함에는 특수전(UDT/SEAL) 요원으로 구성된 검문·검색팀, 해병 경계대 등 300여명이 탑승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청해부대가 피랍 선박에 근접기동, 감시활동을 했던 작년 4월과 달리 실제 구출작전을 실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 재정이 앞으로 적자행진을 계속하면서 오는 2020년에는 적자폭이 16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조3000억원의 적자폭과 단위를 달리하는 이같은 재정적자 추계는 우리나라 보건 의료 제도의 중추인 건강보험 체제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 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나 보험료

및 수가인상 등 제도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이같은 재정추계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의 추계 결과 적자 규모는 내년에는 281억원, 2013년 1조5122억원으로 크게 불어나고 2015년까지 매년 1조5000억원 정도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윅고 2018년에는 적자규모가 10조원대를 돌파한 뒤 2020년 15조9155억원, 2030년 47조7248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추산은 건보재정 지출이 2012

년부터 2030년까지 41조6000억원에서 137조원으로 무려 3.3배로 늘어날 데 반해 수입은 41조6000억원에서 89조3000억원으로 2.1배로 증가하면서 수치 불균형이 심화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급여비 지출이 2012년 13조4000억원에서 2020년 32조2000억원, 2030년 70조3000억원으로 18년만에 5.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전남도의회 올해 입법정책 기능·연구 강화

총무담당관→의정지원관

전남도의회가 입법정책 기능 및 정책 연구 부문을 강화한다. 전남도의회는 17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2011년 의회 업무계획’을 내놓고 목표 달성을 위해 5개 과제와 16개 세부실천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준국장급인 총무담당관을 의정지원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책개발부문을 총괄하도록 했다. 기존 의사담당관은 입법지원관으

로 명칭을 변경한 뒤 의원입법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으며 상임위원회에 5급인 입법정책전문위원을 배치해 상임위 소관 입법정책개발과 의안 분석업무를 맡겼다. 의원들의 자치입법 지원을 위해 실무시스템을 의원요청과 자체개발로 나눈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타지역 의회의 입법동향도 분석해 제공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또 도정 주요 현안의 문

임위원회 소관의 정책개발과 의안심사 분석기능도 지원할 계획이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이거나 사회화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이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호균 도의회의 의장은 “의장·상임위원장단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정례회해 의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후진타오 “6자회담 재개 기대·남북통일 지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한 관련 당사국들의 적극적 조치와 환경 창출을 기대했다. 후 주석은 19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포스트(WP) 및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가진 공동 서면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후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 “중국은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대화와 협의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에 비핵화를 이루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들(active measures)을 취하고 환경들(conditions)을 창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언급은 한·미·일 3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후 주석은 이어 “관련국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하며, 6자회담을 통해 포괄적이고 균형되게 9·19 공동성명을 이행한다면, 우리가 한반도 핵문제를 풀 적절

한 해법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밖에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과 한국의 친구이자 가까운 이웃으로서 중국은 남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화해와 협력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독립되고 평화로운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그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통일)는 남북한 양측의 근본 이익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실버타운 복지사업 검토

60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건립 및 운영사업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말 외부용역을 통해 실버타운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율 90%를 기록할 경우 수익률이 지난 5년간 국제수익률 4.9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또 지난해 말 5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에 대한 전화 수요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39%가 입주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버타운 입주자는 60세 이상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노후생활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3월 기금운용위원

회에 안전으로 상정하는 한편 실버타운사업의 경우 올해 내로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한 설립안을 확정짓고 기금위에 정식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마련된 ‘가입자 및 수급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연금 복지사업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일정한 입주율이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 실버타운 소형모델의 경우 150세대, 부지 2만 1500㎡ 규모다. 46㎡ 150세대, 83㎡ 120세대, 100㎡ 30세대이며 분양가는 3.3㎡당 1050만원이다. 월생할비는 1인 기준 46㎡ 64만원, 83㎡ 75만원, 100㎡ 80만원이며, 2인 기준은 각각 114만원, 125만원, 130만원으로 제시됐다. 부지매입부터 입주까지는 총 5년이 소요되며 전체 사업비는 1140억원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

한주호賞 만든다

천안함 승조원 구조과정에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한주호상’이 만들어진다. 해군 관계자는 17일 “고인의 숭고한 군인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주호상 제정을 결정했다”며 “해군 특수전 여단(UDT)과 해남구조대(SSU), 해병대 특수수색대 등 특수전 부대 소속 준사관과 부사관 가운데 2명을 선발해 올해부터 시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군 작전사령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3명씩 추천한 인원을 대상으로 중앙공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군과 해병대 특수전 요원 1명씩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13기 Science Communicator 기본과정 방과후학교 과학탐구 지도사 교육생 모집

모집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센터장 : 이영숙 (전남대학교 교수)

♣ Science Communicator란?

- 과학현상을 쉽게 설명해주는 전문 ‘과학 해설사’
- 과학관, 생활과학교실, 방과후 학교 등에서 실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 유도.

♣ 대상자 및 선발인원

- 이공계 전문학사이상 여성 (2012년 졸업예정자 포함)
- 선발인원 : 20명 내외(비이공계 20%)

♣ 특 징

- 강 사 : 전남대 과학영재교육 담당 교수진, 방과후 학교 대통령상 수상자, 현장 전문가 외
- 파트타임 방과후학교 교사, 생활과학 교실 추천 및 활용
- 미취업자는 정부부처 일자리 창출사업 우선 선발

♣ 기간 / 장소

- 기 간 : 2011년 2월 7일 ~ 18일(월, 수, 금)
2011년 2월 21일 ~ 24일(교육실습)
- 장 소 :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사범대학

♣ 신청방법 : 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gjis.wist.re.kr/) 참조

- 신청기한 : 2011년 2월 1일까지(선착순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및 교육 내용 : 홈페이지 (http://gjis.wist.re.kr/) 참조

♣ 문 의 : 062) 602-7405 (7402~7406)

주 관 : **광주전남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GJIS WIST Gwangju Jeonnam Institute for Supporting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후 원 : 교육과학기술부 **NRF** 한국연구재단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안에 화제다 얼굴이며 몸매가 모델을 뺄지는네 거기에다 흔들며 떨어주니 할망 거라는 머릿결 보드랍고 말랑거리는 피부 캄캄이는 눈동자 가슴과 신체 부위가 실재한데 키는 1m50이 되며 세시하니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린다. 본능적인 성욕을 해소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범죄 예방도 되니 내여자가 인기발로 불타가 난다.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가방도 드립니다.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작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섭취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02302-469931(정의철)

생노병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사 이 텍 070-7786-6631 010-6306-7070 (미쓰고) 070-7786-9710 010-7102-7070

정품! 정량!! 난방유

SK 삼보주유소

마일리지카드 발행 (인적사항 기재 없음)

명품 외부 세차! 깔끔 내부 세차!

차량 무료점검 서비스 시행
Speed Mate와 업무제휴

난방유 할인판매

- ▶ 현금결제시 우대
- ▶ OK로고 있는 전 카드 할인혜택
- ▶ 한드림당 4천원~6천원 할인
- ▶ OK캐시백적립

내부세차 합니다

산수오거리에서
자산(법원) 큰사거리 지나 200m우측

062-224-5189
011-666-7899